

지면과 분리된 대학광고

◇대학광고 변천사를 살펴본다(上)◇

고는 현재 거의 모든 매체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 대학신문 역시 여기서 예외이기를 원하고 있으나 지금까지도 게 쉽게 광고의 그늘을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글은 대학신문의 초창기 광고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흐름을 봄으로써 대학신문에서 광고의 의미와 새롭게 제기되었던 광고 것 만들기 운동의 의미도 함께 살펴보고자한다. 특히 이글에서는 광고를 일러적으로 4단계로 분류하였다. 1단계는 상업광고의 초형과 등장, 2단계 상업광고의 전성기, 3단계 상업광고에 대한 생의 인식 변화와 새로운 이미지광고의 등장, 4단계 대학광고 우 만들기 운동과 대학신문의 광고제작 비평이다. 이번 첫에서는 3계를 살펴본다.

년대는 대학신문의 창간이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대학신문이 창간하였으리라 할 수 있다. 대부분 400만 500만 원의 제작 예산을 할당 초기 광고를 받지 않았다. 그 이유는 1 기사가 대부분 학교의 소식을 다루었고 실제 광고를 싣는 사람이 적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광고를 싣고자하는 노

려다가 최초의 광고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비록 광고 형식 학교신문 안에서 일정한 형태를 띠고 있었지만 대

이 광고는 학사위원에 대한 보고효과를 기대하기 위한

물었다. 어쨌거나 창간이나 음식광고는 그 당시 엄청난 성공을 불러일으켰으며 광고의 효과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크게 나타났다. 이 당시 광고의 형태는 세로신문 평균 150에 서 1단 텍스트로 되어 있었다. 이 시기는 중간의 광고가 가독성 면에서 비교적 우위에 서게되었다. 이것은 상업광고의 초창기 모습이다.

이후 상업광고는 점점 더 많은 지면을 차지하였다. 특히 당시의 광고에 대한 아무런 제약이 없었으므로 여성숙곳을 그림으로 나타낸 광고도 있었고, 커 크게

최초의 대학신문 광고는 공고형태의 학교 안에 80년대말 광고 '우리것 만들기' 운동 시작

하는 기구를 설명하는 광고, 여성숙곳의 광고등도 빈번히 싣는 데에 실패했다. 그러나 광고가 성숙해져 여성숙곳과 거리가 멀어진 것은 당시의 사회적 상황

에 기인한 것이리라 하였다. 이 당시 광고의 1단계로 넘어가면서 공고는 엄청난 변화를 보았다. 비록 여성의 상품화와 상업주의의 극치가 그것이다. 선정적인 영화광고에서부터 옷 신

상업광고는 광고가 실리게되는 구조적 변화와는 별도로 2000년 이후 대학신문에 뿌리내려왔다. 지금에서야 일간신문이 권력이 아닌 자본과의 싸움을 시작했듯이 대학신문 역시 상업광고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며 이후 새로운 대학신문의 광고문화로 옮겨왔다. 비록 그 결과가 자체제작광고증가와 지면화가 그것일 것이

다. (안소희 記者)

지상 전람회



▲ '길가에서' 올렌코프 보리스 드미트리예비치작

발달의 러시아미술을 서술에서 접할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이 작품은 러시아에서 현재 활동하는 사실주의의 대표작가/원로 기의 풍경화에 관심을 기울인 작품들이 보인다. 이후 새롭게 된 100여점의 그림 전람회는 풍경화는 러시아 후기사실주의로 불수 있는 작품들이었다. 시아와 고유한 산과 들을 시간장은 사실적으로, 그런가하면 그 시원을 비탄없이 넣어가며 화려하게, 혹은 중후한 색채로, 과 솜을 고요하고 차분하게 공간적으로 표현한 그들의 작품에 '식적'이고 시적인 경향까지 내놓고있어 러시아의 새로운 미 동을 보는것 같다. 시아의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작품들은 그 작품의 주제나 의와 일치한 면에서 조금도 모자라거나 과장됨이 없다. 이들의 의지가 우리의 시각을 새롭게 하여 준다면 러시아 미술의 부 재발가를 기대할만한 전시회라 본다. 한 이번 전시회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단순한 미술전시회가



▲ '전망' 아를로프 알렉산드로 리콜라예비치작

이내라. 체르노빌원전사고피해를 당한 아동을 돕기위한 콘서트인 자선전시회라는 점이다. 이는 아들과 지역을 넘어 인간에대한 사랑의 표현이자 스스로에게 희망을 끌어내어 조화로운 세계를 열고자 하는 점에서, 작년 모스크바미화를 방문중이던 조영신총장의 체르노빌방문예의하러 이루어진 인간에 대한 사랑의 전시회이다. 이 전시회는 본교 후원으로 서울 강남에 있는 효천회관(514-8231~)에서 발은사회국제협력한국본부, 한중소헌회, 국제아동보 호기구(UNICEF) 주최, 후원회관, (주)교회사설원으로 5월22일부터 6월3일까지 전시된다. 박 제 호 (사대교수·미교과)

한국에 펼쳐진 러시아 풍경

— 체르노빌원전피해 아동돕기 자선 전시회 —

▼ '전망' 아를로프 알렉산드로 리콜라예비치작

신간안내

내 기억속의 푸른사랑

신간출 세의 시집 '내 기억속의 푸른사랑'이 해 화답에 서 발간되었다.

'지구마을 풀밭의 장', '푸른 사랑', '누이와 얼굴이', '한나루 연말'의 총 4부로 구성된 이 시집은 그 삶의 주변에서 얻은 신적 경험을 통해 바깥으로 차분히 새겨내려가고 있다.

6·25를 겪으면서 가해들과 헤어져 있을 때, 반의 편들을 벗신아 고향을 시선을 배워며 어떤 것이 문득의 꿈을 꾸었다는 유년 시절이 그의 시의 주조인 '한나루 사랑과 푸른 사랑'을 이끌어 내는데 잠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러한 감 상속에서도 그의 비평적인 사고가 나타나고 있다.

본교 국문과와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그는 지난 78년 '현대시학'으로 등단하였고, 작년 12월 경희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현재 경희대학 교 교사로 재직중이다.

박 제 호 (사대교수·미교과)

캠퍼스 문화인

하층민과 함께하는 노래패

— '장작불' 회장 고수경양을 만나



▲후회없는 삶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는 고수경양

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라는 그는 고고 시절 합창단을 발간 담보하여 대중들과 함께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화합력의 가창지도를 맡고 있고, 신디카 이지를 배우는 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후배들에 대해 강한 책임감을 느끼는 그는 공연 계획이 원정상의 이 두로 후배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는 한편 후배들이 빈틈 및 철저한 연습에 거꾸걸을 노력이 없다면 하는 바람을 전하면서, '후배들이 본 고에 빈틈없이 연습부가 성취되 어 그들의 아픔을 같이 할 수 있어'라는 말을 덧붙였다. (김원철 記者)

기로 하였다. 26일 공연 '두껍이 두껍이'가 보여주기 위한 공연만이 아닌, 신입생들에게 올바른 관습을 심어 개인적 발전을 모색하는 통 토가 되는 동시에 지난 겨울 동계 반활 후 지금까지 관심을 갖고 보아 왔던 캠퍼스 문화의 농 민, 노동자의 삶을 통한 자본주의의 그늘진 면을 보여 줄 것이

다. (안소희 記者)

문화단신

'봄의 콘서트' 공연

음대 리사이틀 홀에서 '봄의 콘서트'가 간혹자고 수 문화생 주최로 오는 19일 오후 6시 30분부터 음악대학 리사이틀홀에서 펼쳐진다. 음대 2학년들이 주축이 되어 펼쳐질 이번 콘서트는 비발 디와 모차르트와 곡을 위주로 총 19곡을 선곡하여 약동하는 봄을 담아낼 것으로 기대된다.

'탈무드' 정기공연

수원캠퍼스 그늘사운드 '탈무드'는 공연시작지점에서 오는 20일 오후 1시, 30분과 4시, 연 2회에 걸쳐 제 15회 정기공연을 갖는다.

이번 공연에서는 이미 학우들에게 낯익은 자작곡 '안돼'를 비롯, 팝송과 가요, 총 15

곡이 불려질 예정이다. 공연인, 반장선 등을 배출 하여 해내 실력있는 그룹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번 '탈무드' 공연 입장권은 순차로 매표소와 학생회관 내 캐드드럼에서 예매중이다. 한편 '탈무드'는 드럼과 베이스 기타를 맡을 실력있는 92 학번을 모집한다.

'연서회' 서예 전시회

수원캠퍼스 뜻깊은 연구 동아리 '연서회'는 오는 27일부터 3월 31일 제 15회 정기연서전을 개최한다.

주제는 '자연'이었으나, 정 회원내에서 오는 19일까지 명제를 마감하고 21일 6시까지 작품을 받아 전시할 이번 연서전은 한문에서 해서, 전서, 행서, 여서체, 한글에 고체, 궁체 등의 작품들이 전시될 예정이다. 또한 관람객이 서예발달사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서체에 대한 관련화자도 함께 준비중이다.

개교 43주년 창간 37주년

서랍 속에 묻어 버릴 수 만은 없습니다!



대학주보사에서

詩 문에

현상공모가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도전하십시오

詩 문에 현상 공모

본사는 개교 43주년과 창간 37주년을 기념하여 대학인들의 문예창작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창작작능력의 질적 고양을 위해 '제3회 대학주보 시문예현상공모'를 실시합니다.

- ▲참모기간: 1992년 5월5일부터
- ▲응모부문: 시(원고형, 형식에 제한없이 3편이상)
- ▲응모자격: 본교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 ▲원고제출처: 서울 편집실(구내전화 0095), 수원 편집실(구내전화 2056)

- ▲심사위원: 추후발표
- ▲입상작 발표: 6월 1일자 대학주보 지면을 통해 발표
- ▲입상작 처리

- 1) 당선작 1편: 상금 25만원과 상패 및 다음학기 장학금 전액 지급
- 2) 가작 2편: 각 상금 12만원과 상패 다음학기 장학금 30만원 지급
- 3) 입선작 3편: 대학주보 게재시 소정의 원고료 지급 및 상패

대학주보사

취업특강안내

92학년도 상반기 취업특강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1. 일 시: 1992년 5월27일(수) 오후2:00
 2. 장 소: 체육과학대학관 시청각실
 3. 강 사: 매일경제사 장재현 부장
 4. 제 목: 금년도 기업현실과 채용계획
 5. 참가대상: 3, 4학년 전체 재학생
- TEL. (0331) 280-2025~6
수원캠퍼스 학생처 취업정보실